

현대차 하반기 최대 기대작 몰려온다

# 대형SUV ‘팰리세이드’, 신차급 변신 ‘G90’ 출시 임박

이달 중순 카마스터 대상 신차설명회 차종별 마케팅 등 고객 소통 강화

팰리세이드, 이달 말 사전계약 풀체인지급 G90은 27일 출시

현대자동차가 올하반기 최대 기대작인 제네시스 브랜드 ‘G90’과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의 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G90과 팰리세이드의 출시를 앞두고 부산에서 카마스터와 지점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 신차설명회를 진행한다. 카마스터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차설명회에서는 각 차종별로 디자인과 마케팅, 상품 USP, 실차 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출시하는 차량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높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팰리세이드에는 운전석에서부터 3열 승객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에 사용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팰리세이드’ 대형 미디어 파사드 티저 광고.

자 경험(UX)을 기반으로 개발된 디자인과 패키지, 안전·편의 기술이 적용됐다. 현대차는 오는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전세계 최초로 팰리세이드를 공개할 예정이며 국내에선 이달 말부터 사전계약 접수를 시작한다.

최근 SUV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팰리세이드의 출시로 대형 SUV 시장도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대형 SUV 시장의 강자인 쌍용자동차의 ‘G4 렉스턴’은 지난 8월 디자인을 세련되게 다듬고 편의사양을 강화한 2019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또 G4 렉스턴의 경쟁 모델인 기아자동차의 ‘모하비’도 이달 초 2019년형이 새로 출시됐다.

현대차는 오는 27일 출시를 앞둔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팰리세이드와 함께 카마스터들을 대상으로 신차설명회를



제네시스 G90 티저 이미지.

진행한다.

G90은 2015년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시하며 처음 선보인 모델 EQ900을 개선했다. 현재 북미에서는 EQ900이 G90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제네시스는 이번에 EQ900의 부분변경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며 이름을 북미와 맞춰 G90으로 바꿔 통일시켰다.

이번에 공개된 G90은 부분 변경이지만 신차급으로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전·후면 램프만 있던 EQ900과 달리 전면·측면·후면 세 군데 램프

가 일직선으로 연결돼 차량을 감싸는 모양으로 설계했다. 제네시스는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천, 대구, 부산에서 G90 출시 전 차량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

사전 계약 기간에 G90을 계약하는 고객에게는 내년엔 차량이 출고되어도 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을 보장해준다. 판매 가격은 ▲3.8 가솔린 7706만원 ▲3.3 터보 가솔린 8090만원 ▲5.0 가솔린 1억 1878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 하반기 출시되는 두 차량 모두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내부에서도 남다른 애정과 기대감을 갖고 선보이는 모델”이라며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완벽한 준비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량에 맞는 품격을 전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팰리세이드는 대형 SUV시장에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제시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SUV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두산인프라코어, 印尼 방산장비시장 진출

자카르타 ‘방위산업전시회’서 핀다드와 엔진공급 협력 MOU



두산인프라코어가 인도네시아 방산장비용 엔진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7~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핀다드와 엔진 공급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는 핀다드와 함께 인도네시아 방산 장비에 대한 엔진 탑재를 검토하고, 엔진 선정·물량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 생산업체 BBI와 디젤엔진 현지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

후 차량과 선박, 산업장비 등 다양한 산업군에 엔진 공급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다양한 엔진 제품 라인업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잠재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장을 다각화하면서 글로벌 엔진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0월 이탈리아 트랙터 생산업체 아르보스와 6년간 2만7000여대의 디젤엔진을 공급하는 LOI(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중국지게차 회사 바올리의 엔진 공급사도도 선정돼 2025년까지 1만2000여 대의 디젤엔진을 공급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 KT, 인천공항서 자율주행 버스 시연 성공

인천공항 제1터미널 2.2km간 주행 차선변경·속도감소 등 안정적 완주

KT가 만든 자율주행버스가 인천공항을 가로질렀다.

KT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이 참관했다.

앞서 KT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공항을 만드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KT 자율주행버스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2.2km간을 주행했다. 차선



KT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험 운행했다고 밝혔다. /KT

변경뿐 아니라, 앞차와 신호 교차로를 안정적으로 완주했다. 식해 속도를 줄이고 장애물을 피하는 등

/김재용 기자 juk@

## LG유플러스, 경력단절여성 지원 앞장

‘시간선택제’ 영업전문 인재 18일까지 지원자 모집나서

LG유플러스는 결혼·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선택제’ 영업전문 인재를 인원 제한 없이 공개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LG유플러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

입사자는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의 영업인재로 통신 서비스 컨설팅 및 판매,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는 가사 활동 시간을 고려해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 선택이 가능하다. 4시간 근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유플러스 모델이 ‘시간선택제’ 영업전문인재 공개 채용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6시간 근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오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 등 5가지 시간대가 있다. 총 9가지 타입 중에 원하는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KT, 호주 퀸즐랜드주에 첨단 ICT 심는다

호주 SCC·서울대 농과대학과 MOU 교통·행정 등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KT가 호주 퀸즐랜드주에도 첨단 ICT를 심는다.

KT는 8일 호주 SCC와 퀸즐랜드주에 스마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도 함께하는 3자간 MOU로 진행됐다.

스마트커뮤니티는 지역에 ICT를 접목해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생산성을 높인다는 개념이다. 에너지와 교통, 환경,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KT는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팜 등 ICT 구축 노후를 퀸즐랜드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대의 농업생명분야 연구, SCC의 차세대 생명 신소재 역량도 함께 힘을 합친다.

구현모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은 “서



KT는 8일 서울 KT 광화문 빌딩에서 호주 퀸즐랜드주에 스마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호주 SCC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KT

울대학교 및 SCC와의 협력을 통해 KT가 한국에서 인정 받은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를 호주 퀸즐랜드주에 현지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진출과 더불어

앞으로 퀸즐랜드뿐 아니라 호주 전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